

회복력 요인 중심의 이혼가정 아동 적응모형

신성희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시간강사

Development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Children's Adaptation in Divorced Families

Shin, Sung Hee

Part-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nd test a structural model for children's adaptation in divorced families. The hypothetical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Family Resilience Model by McCubbin and McCubbi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219 children (3-6th grade) in divorced families. The children attended one of 22 community agencies, 8 after-school programs, 3 elementary schools in three cities in South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LISREL program to test the hypothetical model. **Results:** The modified model was constructed by deleting four paths in accordance with the statistical and theoretical criteria. Compared to the hypothetical model, the revised one had a better fit to the data. Self-esteem, and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had direct effects, and family communication and internal control had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adaptation in divorced families. These variables explained 56% of the variance in children's adaptation. **Conclusion:** The modified model was supported by empirical data. This model could be applied to family nursing interventions with divorced families or any other suffering family transition. When working with children experiencing parental divorce, it is important for nurses to enhance children's self-esteem, family communication and to decrease children's negative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to help in their adaptation.

Key words: Adaptation, Divorce, Children, Resilience, Famil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80년 2만 3천 건이었던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2003년 16만 7천 건으로 20년 만에 일곱 배가 증가하는 최고치를 보였으나, 이혼숙려제 도입 등으로 2008년 11만 6천 5백 건으로 2007년에 비해 6.1%가 감소하였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

ice [KNSO], 2009). 그러나 이혼한 부부 중 54.0%가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나 2008년 한 해 동안 아동을 포함한 총 10만 1천 7백 명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다(KNSO, 2009). 아동은 부모이혼의 일방적인 최대 피해자로서 세대 간에 걸쳐서 부모의 문제를 반복하게 되어 또 다른 가정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점(Amato & Keith, 1991; Hetherington, 1991)에서 부모이혼 후 아동의 적응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주요어 : 적응, 이혼, 아동, 회복력, 가족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from Kyung Hee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hin, Sung Hee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312 Fax: 82-2-961-9398 E-mail: sunghshin@khu.ac.kr

투고일 : 2009년 10월 28일 심사위원회일 : 2009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0년 2월 4일

1990년대 초까지 이혼가정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이혼가정 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행동, 정서, 건강, 학업적인 문제가 더 많다고 보고하며 주로 이혼이 아동발달상의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Amato & Keith, 1991; Hetherington, 1991).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지적과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관한 종단적인 연구들이 이전과는 다른 결과들을 보고(Hetherington & Stanley-Hogan, 1999)하면서 이혼가정 아동의 회복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Amato (1993)에 의하면 이혼가정 아동의 대다수가 평균 범위에 속하는 적응점수를 보였으며, 이들의 적응이나 성취정도를 보면 양부모 가정 아동과 비교할 때 차이가 적다고 하였다. Kelly (2000)도 최근 10년간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아동에게 이혼의 장기적인 결과가 역기능적 이기보다는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회복력이란 개인과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역경상황에서 보여주는 긍정적인 행동패턴과 기능적 역량으로, 개인에서는 위기와 난국에서도 인내하고 역경을 딛고 회복하는 능력을 말하며(Walsh, 1998), 가족에서는 가족 개개인의 안녕을 지키고 가족단위의 통합성을 유지함으로써 분열을 막고 회복하는 가족능력을 말한다(McCubbin & McCubbin, 199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심리학, 사회사업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력에 관한 개념이 다뤄지기 시작했으며 탄력성, 적응유연성, 레질리언스, 복원력 등 여러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 회복력 개념에 관한 연구로는 특정 스트레스를 겪은 아동, 청소년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으나 이혼가정 아동의 회복력 연구는 2000년도 이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양적인 면에서 미흡할 뿐 아니라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단편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다(Cho, 2004; Joo, 2004; Kim & Kang, 2005).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신념,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등의 개인 요인과,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및 공적 지지 등의 가족과 가족외적 요인이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회복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 내 의료문제, 빈곤, 부모사별과 같은 가족위기와 관련하여 McCubbin과 McCubbin (1993)의 가족회복력 모형을 검증한 국내연구들에서 가족강인성, 문제해결대응, 가족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위가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즉 Cho (2004)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부모이혼 후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하였고, Kim과 Kang (2005)은 부모이혼 후 부

모와의 관계 및 가족의사소통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 친구, 부모의 지지가 이혼가정 아동적응에 회복력 요인임을 밝혔다. Joo (2004)는 개인요인으로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과 내적통제신념이, 가족요인으로 가족갈등, 가족관계 및 가족지지가, 가족외적요인으로 환경변화, 친구, 친척, 교사 및 공식적 지지가 부모이혼 후 아동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알코올중독자 가정 자녀의 적응을 연구한 Nam과 Kim (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이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협조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협동성 등의 가족강인성이, 뇌성마비아동 가족 대상의 Lin (2000)의 연구에서는 영적지지추구와 적극적인 자원동원 등의 문제해결대응이 가족적응을 활성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소아암 환자의 가족회복력 모형을 검증한 Sim (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강인성과 문제해결대응이 가족적응에 중요한 회복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요인과 적응과의 단편적인 관계만을 살펴보거나, 개인과 가족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일지라도 영향요인에 초점을 두어서 간호중재를 위한 강점중심의 개인회복력 및 가족회복력 요인의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혼가정을 가족해체 및 붕괴가 아닌 가족환경의 변화로 보았을 때 스트레스나 위기, 역경, 위험원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적응을 위해 가족회복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혼가정 아동의 가족회복력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회복력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증진시키는 실제적인 간호중재 개발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춘기 이전의 아동기는 가족의 영향력이 큰 시기(Joo, 2004)이므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회복력뿐 아니라 가족회복력의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McCubbin과 McCubbin (1993)의 가족회복력 모형을 이론적 토대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회복력과 문헌고찰을 통한 개인회복력과 관련된 변인들의 총체적인 인과구조를 살펴보고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회복력 요인 중심의 이혼가정 아동 적응에 적합한 모형을 구축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보건사업에서 이혼가정을 포함한 가족전환의 위기를 맞는 가족간호 중재 시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회복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회복력 요인을 중심으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모형을 구축하고 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족 회복력 요인(McCubbin & McCubbin, 1993)과 아동의 개인회복력 요인을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McCubbin과 McCubbin (1993)의 회복력 모형에서 회복력이란 가족체계가 가지고 있는 내외적 자원으로 가족강인성, 문제해결대응전략, 관리자원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즉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힘, 가족이 행하는 대처행동, 개인·가족·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자원이 포함되며 문제해결대응전략은 의사소통 개념이 새롭게 첨가되어 문제해결대응과 의사소통으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가족강인성, 문제해결대응, 가족의사소통, 사회적지지를 가족회복력요인으로 보고 이들이 문헌고찰을 통해 개인회복력 요인으로 확인된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신념,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을 매개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틀을 근거로 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외생변수(ξ) 4개와 내생변수(η) 4개로 구성되었다. 외생변수는 가족강인성, 문제해결대응, 가족의사소통, 사회적지지, 내생변수는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신념,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으로 구성되었다. 외생변수에 대한 측정변수(X)는 10개이고, 내생변수의 측정변수(Y)는 6개이며, 각각의 오차변수(δ , ϵ)로 이루어졌다.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변수들 간의 가설적 경로를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정하는 공분산 구조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22개 종합사회복지관, 8개 공부방, 서울, 경기, 대구지역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3-6학년 중 부모가 이혼한 지 12개월 이상 경과된 아동 219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부모이혼 후 경과기간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Joo, 2004), 1년 미만인 자는 부모이혼으로 인한 갈등적 요소가 잔재하여 있고 양육부모가 환경적인 변화에 적응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선행연구결과(Emery, 1999)를 토대로 부모의 이혼이 1년 이상 경과된 아동으로 제한하였다. 대상자 수의 결정은 공분산 구조분석을 할 경우 표본 추출 오차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모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표본의 크기가 20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Bae, 2005)에 의거하였다.

3. 연구 도구

1) 외생변수

(1) 가족강인성

McCubbin, McCubbin과 Thompson (1986)이 개발하고 Lee (1995)가 변안한 가족강인성 척도(Family Hardiness Index, FHI)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한 후, 간호학 교수 3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내용타당도를 높였으며 요인 분석을 통해 총 20 문항 중 문항 간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가족이 함께 의식을 갖고 협조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협동성,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는 적극적인 도전성, 생활상의 사건과 고난에 대한 통제감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강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였고 Lee (199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2$ 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7$ (협동성=.77, 도전성=.74, 통제감=.65)이었다.

(2) 문제해결대응

McCubbin, Olson과 Larsen (1981)이 개발하고 Sim (2004)이 변안한 문제해결대응 척도(Family Crisis Oriental Personal Evaluation Scale, F-COPES) 중 영적 지지추구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역사회 자원을 찾는 가족의 능력인 자원동원의 2개의 하위요인 7문항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행동을 통해 도

움을 얻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Sim (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4$ (영적지지추구=.81, 자원동원=.60)였다.

(3) 가족의사소통

Barens와 Olson (1982)이 개발하고 Min (1990)이 변안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중 자녀용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변환하였으며, 자녀가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의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2개의 하위요인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의사소통 정도가 개방적이고 기능적임을 의미한다. Min (1990)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3$ (개방적 의사소통=.74, 역기능적 의사소통=.54)이었다.

(4) 사회적 지지

Dubow와 Ulman (1989)이 3-7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해 개발한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과 Scale of Available Behavior (SAB)를 근거로 Han (1996)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7문항 4점 척도로 친구, 가족, 교사지지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아동이 느끼는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 (1996)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 (친구지지=.90, 가족지지=.88, 교사지지=.80)이었다.

2) 내생변수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수용·존중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Jeon (1974)이 변안한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2개 하위요인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Jeon (1974)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7$ (긍정적 자아존중감=.76, 부정적 자아존중감=.81)이었다.

(2) 내적 통제 신념

내적 통제 신념이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개인의 내부요인으로 지각하는 심리적 성향으로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일반적인 신념을 말한다(Min, 1999). 아동의 내적통제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Min (1999)이 제작한 내외통제신념척도 중 내적통제신념에 해당하는 7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신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1$ 이었다.

(3)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Kurdek와 Berg (1987)가 제작한 아동의 부모이혼지각척도(Child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CBAPDS)를 Joo (2004)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 중 부모로부터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유기불안과 부모이혼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측정하는 자기비난의 2개 하위요인 7문항을 사용하였다. '예' 또는 '아니요'로 측정하는 응답방식을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이혼에 대한 부정적 지각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oo (2004)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1$ (유기불안=.79, 자기비난=.70)이었다.

(4) 아동의 적응

Achenbach (1991)가 개발하고 Oh, Lee, Hong과 Ha (1997)가 변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형 아동·청소년용 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 List, K-CBCL) 중 정서적 적응상태를 나타내는 우울·불안척도와 행동적 적응상태를 나타내는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3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문항을 수정·보완하는 도구 검정을 위한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3월 말까지였으며 서울, 경기, 대구 지역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와 22개 종합사회복지관, 8개 공부방을 편의표집하여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각 기관을 방문하여 학교장 및 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지정된 날짜에 다시 방문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아동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을 설명하였으며, 자료의 비밀을 보장하였다. 총 24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호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보호자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으로 된 참여 동의서를 기관으로 보낸 아동의 자료 중 아동의 응답이 누락된 사례와 부모의 이혼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사례를 제외한 219부(90.5%)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연구변수의 신뢰도,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및 가설검정을 위하여 Window LISEREL (v8.52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54.3%)이 남학생(45.7%)보다 약간 많았으며, 5학년(36.1%)이 가장 많았다. 형제가 있는 대상자가 많았고(76.3%), 학교성적은 중위권(74.0%)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이 지각한 가정경제상태는 중(71.2%), 하(19.7%), 상(9.1%) 순이었다. 대상자 부모의 평균이혼경과기간은 4.40 (± 2.61)년이었으며, 대상자의 69.4%가 부모이혼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1%가 비양육부모를 전혀 만난 적이 없었으며, 33.8%만이 비양육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다. 대상자의 40.2%는 아버지와, 41.6%는 어머니와 살고 있었으며, 18.2%는 부모가 아닌 조부모 또는 친인척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및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Table 1과 같다. 내생변수에서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77 (± 0.6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Observed Variables

(N=219)

Variables	Mean	SD	Range	Skewness	Kurtosis
Family hardiness	2.97	0.48	1.50-4.00	-0.24	0.06
Cohesion	2.99	0.61	1.20-4.00	-0.42	-0.20
Challenge	2.78	0.71	1.00-4.00	-0.37	-0.09
Being control	3.09	0.60	1.00-4.00	-0.50	-0.13
Problem-solving/coping skill	1.91	0.61	1.09-3.57	0.47	-0.59
Spiritual pursuit	1.87	0.90	1.00-4.00	0.69	-0.70
Seeking help	1.94	0.62	1.00-3.75	0.36	-0.51
Family communication	2.80	0.54	1.33-3.89	-0.13	-0.55
Open communication	2.81	0.64	1.00-4.00	-0.27	-0.51
Problematic communication	2.79	0.64	1.00-4.00	-0.30	-0.26
Social support	2.90	0.57	1.35-4.00	-0.25	-0.45
Friend's support	2.74	0.72	1.00-4.00	-0.49	-0.19
Family's support	3.08	0.71	1.00-4.00	-0.47	-0.49
Teacher's support	2.91	0.67	1.00-4.00	-0.35	-0.13
Self-esteem	2.77	0.60	1.00-4.00	-0.12	-0.39
Positive self-esteem	2.73	0.65	1.00-4.00	-0.35	-0.07
Negative self-esteem	2.86	0.92	1.00-4.00	-0.29	-1.01
Internal control	3.21	0.62	1.00-4.00	-0.89	1.09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1.60	0.59	1.00-4.00	1.03	0.94
Anxiety of abandonment	1.62	0.68	1.00-4.00	1.03	0.72
Self-blame	1.58	0.72	1.00-4.00	1.09	0.67
Adaptation	2.01	0.46	1.00-3.63	0.44	0.30

이고,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각각 2.73 (± 0.65), 2.86 (± 0.92)으로 모두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내적통제신념은 3.21 (± 0.62)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은 1.60 (± 0.59)이었고, 하부 요인별 점수는 유기불안 1.62 (± 0.68), 자기비난 1.58 (± 0.72)로 부모이혼에 대해 문제성 지각 정도가 중간 이하였다. 아동의 적응은 2.01 (± 0.46)로 보통 정도의 적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대부분 -1과 +1 사이에 존재해 정규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루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chi^2=433.96$, $p<.001$ 로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료의 분포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으며 분포가 정규성으로부터 이탈된 경우에도 해석이 가능한 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 WLS)을 모수추정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수 간의 상관계수 행렬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적응은 가설적 모형에 사용된 측정변수 중 문제해결대응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유기불안($r=-.53$), 부정적 자아존중감($r=-.46$), 역기능적 의사소통($r=-.46$), 자기비난($r=-.43$)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제감($r=.36$), 가족지지($r=.30$), 도전성($r=.29$), 개방적 의사소통($r=.27$), 협동성($r=.26$), 친구지지($r=.24$), 긍정적 자아존중감($r=.21$), 내적통제신념($r=.16$), 교사지지($r=.19$)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

구에서 16개의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최대 $r=.64$ ($p<.01$)로 전체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3. 모형의 수정 및 검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전반적 적합지수를 가지고 평가한 결과 $\chi^2=361.27$, $p<.001$, $df=81$, $\chi^2/df=4.46$, GFI=0.82, AGFI=0.89, NFI=0.85, NNFI=0.81, RMR=0.09, CN=269.50으로 가설적 모형과 실제자료가 전반적으로 비교적 적합하였으나 (Figure 1), 측정변수 중에서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4개의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약간 향상되었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높였다. 수정모형에서 전반적 적합지수는 $\chi^2=363.33$, $p<.001$, $df=77$, $\chi^2/df=4.72$, GFI=0.82, AGFI=0.90, NFI=0.85, NNFI=0.92, RMR=0.09, CN=271.24로 나타나 NNFI가 개선되었으며, Q-plot도 가설적 모형에 비해 기울기가 비교적 1에 가까운 직선형을 보여 수정모형을 확정하였다(Figure 2). 다중상관가중치(SMC)는 내생변수의 변량이 외생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가설적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의 적응은 55%에서 56%로 높아졌고,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도 55%에서 56%로, 자아존중감은 59%로 똑같으나, 내적통제신념은 55%에서 50%로 낮아졌다(Table 3).

아동의 적응에 가장 영향을 준 변수는 자아존중감($\beta_{41}=0.56$, $t=2.70$),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beta_{43}=-0.42$, $t=-2.34$) 순으로 나

Table 2.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s for Measured Variables

(N=219)

	X ₁	X ₂	X ₃	X ₄	X ₅	X ₆	X ₇	X ₈	X ₉	X ₁₀	Y ₁	Y ₂	Y ₃	Y ₄	Y ₅	Y ₆
X ₁	1															
X ₂	.52**	1														
X ₃	.30**	.20**	1													
X ₄	.08	.03	-.11	1												
X ₅	.15*	.10	-.17*	.36**	1											
X ₆	.57**	.46**	.20**	.05	.14*	1										
X ₇	-.29**	-.27**	-.32**	.07	.10	-.39**	1									
X ₈	.33**	.28**	.06	.03	.13	.31**	-.17*	1								
X ₉	.62**	.45**	.26**	.07	.11	.64**	-.38**	.44**	1							
X ₁₀	.32**	.28**	.05	.13	.19**	.31**	-.08	.51**	.42**	1						
Y ₁	.48**	.46**	.09	.12	.21**	.47**	-.26**	.45**	.46**	.48**	1					
Y ₂	-.19**	-.19**	-.17*	.05	-.07	-.19**	.30**	-.21**	-.27**	-.22**	-.34**	1				
Y ₃	.32**	.36**	.11	.06	.14*	.32**	-.19**	.34**	.46**	.40**	.53**	-.19**	1			
Y ₄	-.25**	-.25**	-.35**	.05	.15*	-.39**	.28**	-.27**	-.30**	-.17**	-.28*	.34**	-.12	1		
Y ₅	-.31**	-.23**	-.35**	.08	.05	-.34**	.28**	-.23*	-.34**	-.10*	-.19**	.24*	-.14**	.53**	1	
Y ₆	.26**	.29**	.36**	-.10	-.12	.27**	-.46**	.24**	.30**	.19**	.21**	-.46**	.16**	-.53*	-.43**	1

* $p<.05$; ** $p<.01$.

X₁=Cohesion; X₂=Challenge; X₃=Being control; X₄=Spiritual pursuit; X₅=Seeking help; X₆=Open communication; X₇=Problematic communication; X₈=Friend's support; X₉=Family's support; X₁₀=Teacher's support; Y₁=Positive self-esteem; Y₂=Negative self-esteem; Y₃=Internal control; Y₄=Fear of abandonment; Y₅=Self-blame; Y₆=Adap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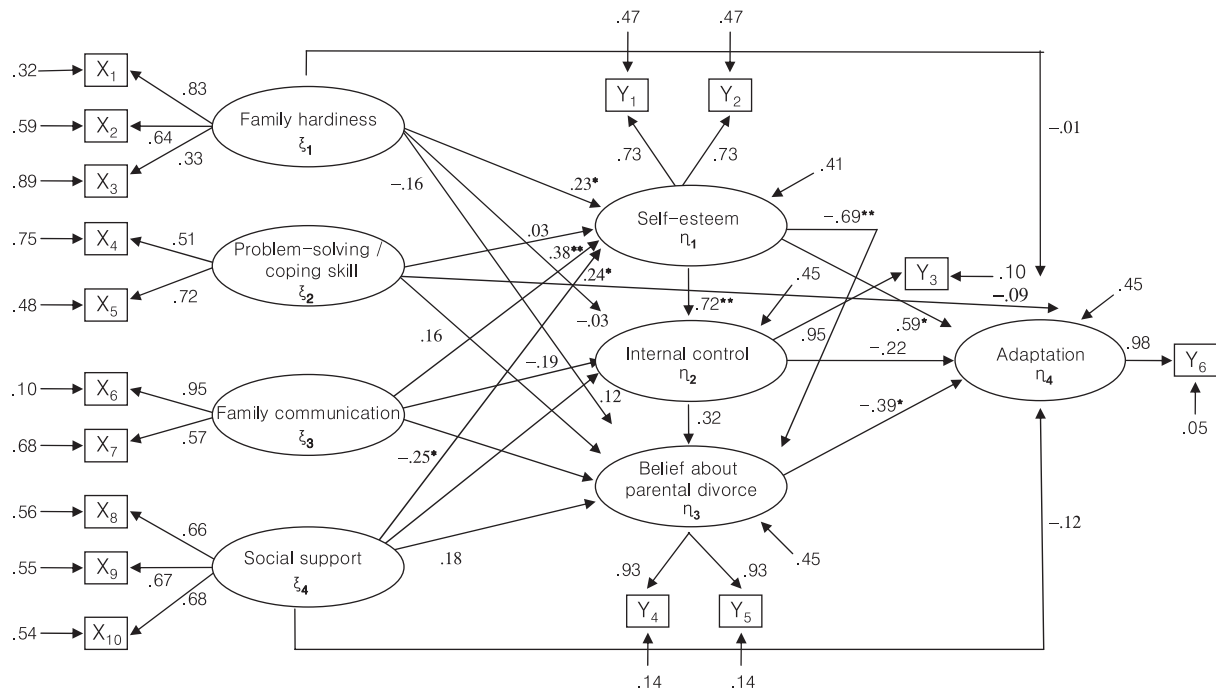


Figure 1. Testing for hypothetical model.

* $p < .05$; ** $p < .01$.

X₁=Cohesion; X₂=Challenge; X₃=Being control; X₄=Spiritual pursuit; X₅=Seeking help; X₆=Open communication; X₇=Problematic communication; X₈=Friend's support; X₉=Family's support; X₁₀=Teacher's support; Y₁=Positive self-esteem; Y₂=Negative self-esteem; Y₃=Internal control; Y₄=Fear of abandonment; Y₅=Self-blame; Y₆=Adap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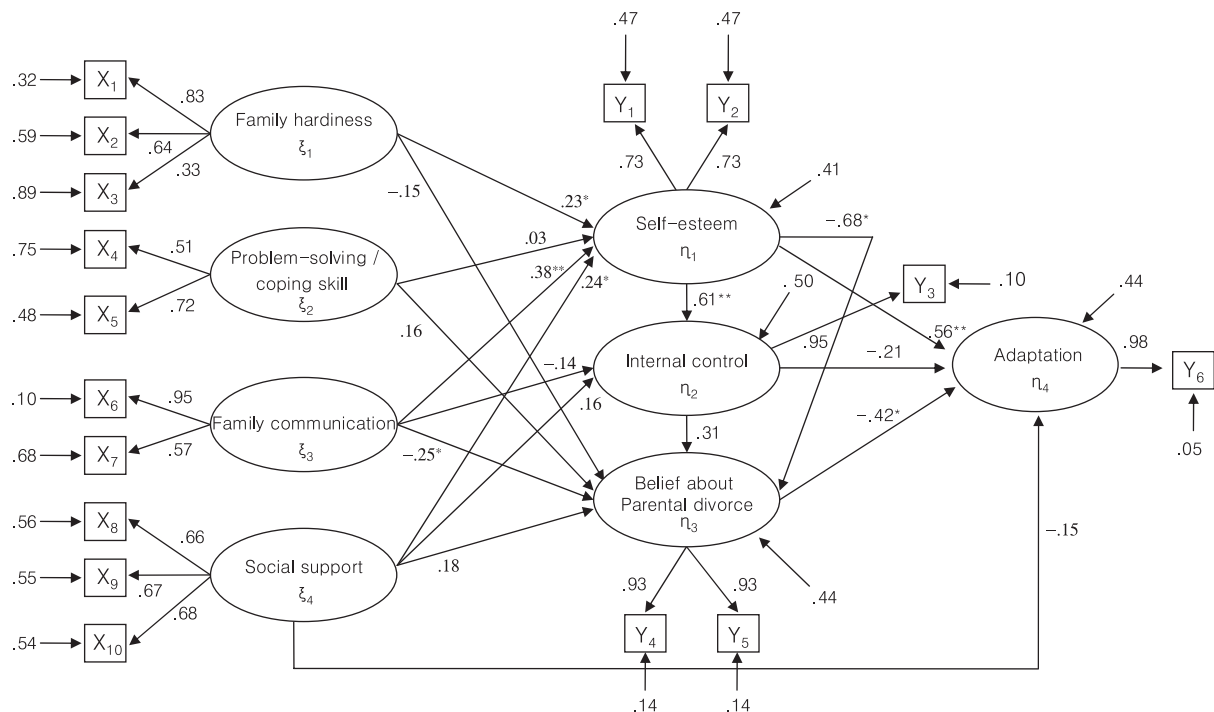


Figure 2. Testing for modified model.

* $p < .05$; ** $p < .01$.

X₁=Cohesion; X₂=Challenge; X₃=Being control; X₄=Spiritual pursuit; X₅=Seeking help; X₆=Open communication; X₇=Problematic communication; X₈=Friend's support; X₉=Family's support; X₁₀=Teacher's support; Y₁=Positive self-esteem; Y₂=Negative self-esteem; Y₃=Internal control; Y₄=Fear of abandonment; Y₅=Self-blame; Y₆=Adaptation.

Table 3. Lisrel Estimates for the Modified Model an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Lisrel estimates (SE)	t	SMC	Direct effect (t)	Indirect effect (t)	Total effect (t)
Self-esteem			.59			
Family hardiness (Y_{11})	.23 (.18)	2.26*		.23 (2.26)*	-	.23 (2.26)*
Problem solving (Y_{12})	.03 (.10)	0.27		.03 (0.27)	-	.03 (0.27)
Family communication (Y_{13})	.38 (.13)	2.92**		.38 (2.92)**	-	.38 (2.92)**
Social support (Y_{14})	.24 (.19)	2.29*		.24 (2.29)*	-	.24 (2.29)*
Internal control			.50			
Family hardiness (Y_{21})	-	-		-	.14 (1.19)	.14 (1.19)
Problem solving	-	-		-	.16 (0.27)	.16 (0.27)
Family communication (Y_{22})	-.14 (.13)	-1.04		.14 (-1.04)	.23 (2.06)*	.09 (0.92)
Social support (Y_{23})	.16 (.15)	1.66		.16 (1.66)	.15 (1.11)	.31 (2.28)*
Self-esteem (β_{21})	.61 (.24)	2.60**		.61 (2.60)**	-	.61 (2.60)**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56			
Family hardiness (Y_{31})	-.15 (.21)	-0.73		-.15 (-0.73)	.11 (-1.12)	-.27 (-1.40)
Problem solving (Y_{32})	.16 (.11)	1.41		.16 (1.41)	-.01 (-0.27)	.14 (1.41)
Family communication (Y_{33})	-.25 (.18)	-2.37*		-.25 (-2.37)*	-.23 (-1.59)	-.48 (-3.76)**
Social support (Y_{34})	.18 (.21)	0.86		.18 (0.86)	-.07 (-0.51)	.11 (0.63)
Self-esteem (β_{31})	-.68 (.36)	-1.90		-.68 (-1.90)	.19 (1.24)	-.49 (-1.92)
Internal control (β_{32})	.31 (.15)	1.96*		.31 (1.96)*	-	.31 (1.96)*
Adaptation			.56			
Family hardiness (Y_{41})	-	-		-	.21 (1.79)	.21 (1.79)
Problem solving (Y_{42})	-	-		-	-.05 (-0.75)	-.05 (-0.75)
Family communication (Y_{43})	-	-		-	.40 (4.25)**	.40 (4.25)**
Social support (Y_{44})	-.15 (.15)	-0.99		-.15 (-0.99)	.03 (0.17)	-.12 (-1.00)
Self-esteem (β_{41})	.56 (.33)	2.70**		.56 (2.70)**	.08 (0.50)	.65 (2.73)**
Internal control (β_{42})	-.21 (.15)	-1.37		-.21 (-1.37)	-.13 (-2.03)*	-.33 (-2.21)*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β_{43})	-.42 (.18)	-2.34*		-.42 (-2.34)*	-	-.42 (-2.34)*

* $p < .05$; ** $p < .01$.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아동의 적응을 56% 설명하였다.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준 변수는 내적통제신념($\beta_{32}=0.31$, $t=1.96$), 가족의사소통($Y_{33}=-0.25$, $t=-2.37$) 순이었다. 자아존중감($\beta_{31}=-0.68$, $t=-1.90$)은 표준오차(SE=0.36)가 커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변수는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을 56% 설명하였다. 내적통제신념에 영향을 준 변수는 자아존중감($\beta_{21}=0.61$, $t=2.60$)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적통제신념을 50% 설명하였다.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가족의사소통($Y_{13}=0.38$, $t=2.92$)이었으며, 사회적지지($Y_{14}=0.24$, $t=2.29$), 가족강인성($Y_{11}=0.23$, $t=2.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자아존중감을 59% 설명하고 있다.

수정모형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내생변수 중심으로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아동의 적응에 자아존중감(총 효과=0.65, $t=2.73$)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beta_{43}=-0.42$, $t=-2.34$), 가족의사소통(총 효과=0.40, $t=4.25$), 내적통제신념(총 효과=-0.33, $t=-2.21$) 순이었다. 자아존중감은 간접효과 없이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유의

하였으며, 내적통제신념은 직접효과($\beta_{42}=-0.21$, $t=-1.37$)없이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을 매개로 간접효과(효과계수=-0.13, $t=-2.03$)가 유의하여 총 효과가 유의하였다. 가족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신념,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을 매개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가족강인성과 사회적지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의사소통(총 효과=-0.48, $t=-3.76$), 내적통제신념($\beta_{32}=0.31$, $t=1.96$)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사소통은 간접효과(효과계수=-0.23, $t=-1.59$)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Y_{33}=-0.25$, $t=-2.37$)의 계수방향인 (-)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총효과(총 효과=-0.48, $t=-3.76$)를 증가시켰다. 가족강인성, 문제해결대응,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은 유의하지 않았다. 내적통제신념에 영향을 준 변수는 자아존중감($\beta_{21}=0.61$, $t=2.60$), 사회적지지(총 효과=0.31, $t=2.28$) 순이었다. 그러나 가족의사소통(총 효과=0.23, $t=2.06$)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하는 간접효과는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의 계수방향인 (-) 방향과 달라 총효과(총 효과=0.09, $t=0.92$)가 상쇄되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강인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의사소통($V_{13}=0.38$, $t=2.92$), 사회적지지($V_{14}=0.24$, $t=2.29$), 가족강인성($V_{11}=0.23$, $t=2.26$) 순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회복력 요인을 중심으로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간호중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토 결과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4개의 경로를 제거한 후 간명하고 적합도가 적절한 수정모형을 확정하였다. 수정모형의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 설명력은 56%,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59%, 내적통제신념의 설명력은 50%,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설명력은 56%였다.

먼저 수정모형을 가설적 모형과 비교해 보면 McCubbin과 McCubbin (1993)의 가족회복력 모형을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알코올중독자 가정의 자녀적응 등 가족위기와 관련한 가족적응의 선행연구(Lin, 2000; Nam & Kim, 2003; Sim, 2004)에서 가족회복력 요인은 가족적응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도 직·간접 효과를 주는 것으로, 개인회복력 요인은 아동의 적응에 직접 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모형의 검증과정에서 가족강인성은 아동의 적응에 직접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이 적응에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에서 가족강인성의 경로를 제거하였다. 문제해결 대응도 아동의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에서 경로를 제거하였으나 이러한 결과가 이혼가정 아동에게만 한정되는 결과인지, 아동이 가족의 영적지지추구와 자원동원 등의 문제해결 대응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르게 나타난 결과인지는 추후 반복연구 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사소통은 아동의 적응에 직접효과는 없이 간접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적응에 직·간접 효과 없이 개인회복력에만 영향을 주었다. 개인회복력은 모두 아동의 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효과를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회복력이 낮은 이혼가정의 아동일지라도 이혼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을 통해 아동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혼가정 아동대상의 적응 프로그램 개발 시 아동의 개인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접근뿐 아니라 가족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가족회복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가족의사소통, 내적통제신념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으로 확인되었는데 적응에 간접효과 없이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이혼가정의 아동이 부모이혼 후 성공적으로 적응한다고 보고한 Cho (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자아존중감은 개개인의 환경에서 주위사람들인 부모나 교사, 친구의 태도에 의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특히 아동기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현재의 태도와 행동양식을 결정할 뿐 아니라 미래의 태도와 행동양식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75). 그러므로 부모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고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가족회복력 요인인 가족의사소통, 사회적지지, 가족강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 친구, 가족의 지지와 가족의사소통이 이혼가정 아동들에게 영향력 있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된 Kim과 Kang (2005), Joo (200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지지의 간호중재로서 이혼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단체나 기관에 대한 정보를 주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이나 자조그룹과 접촉하게 도와줌으로써 이혼이 감춰야만 하는 은밀한 것에서 탈피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전략을 찾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인 3-6학년 아동들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서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차츰 또래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이므로(Han & Kim, 2006) 가족의 지지와 더불어 교사 및 친구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보다는 사회복지관을 통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이혼의 노출을 꺼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발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최근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구성형태가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 뒤쳐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한 것이며, 결점관점의 연구결과들(Amato & Keith, 1991; Hetherington, 1991)을 부각시키는 매스컴의 영향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혼가정 아동의 건강한 적응을 위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결점관점이 아닌 강점 측면의 회복력 요인을 강화시키는 이혼가정 아동

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요인 중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이 부모이혼의 원인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거나, 부모이혼 이후 자신도 한쪽 부모로부터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각할수록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Joo (2004)와 Hethreington (199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령기는 근면성의 발달과업을 달성하여 이후 성장단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학령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발달단계인 사춘기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발달과업과 더불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적응문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Bae, 2008). 그러므로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부모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는 가족의사소통과 아동의 내적통제신념이 직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신념,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있어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가족의사소통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내적통제신념과 부모이혼에 대한 문제성 지각정도를 낮춰줌으로써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 연구(Cho, 2004; Kim & Kang, 2005; Leske & Jiricka, 1998)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후 많은 양육부모들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자녀와 대화하기를 꺼려하거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양육부모가 자녀와 생활하면서 비양육부모를 비난함으로써 부모의 이혼사유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Kim & Kang, 2005).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69.4%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33.8%만이 비양육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령기 아동인 본 연구 대상자들이 부모이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되게 이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문제성 지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양육보호자와 비양육부모를 포함하는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개방적인 대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회복력인 내적통제신념 역시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

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헌고찰을 통해 내적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아동의 적응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부모이혼에 대한 문제성 지각을 매개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Cho, 2004; Joo, 2004)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즉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단순상관관계에서는 아동의 적응과 내적통제신념이 정적($r=.16, p<.01$)인 관계를 보여 선행연구와 일치되게 내적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이혼가정의 아동이 적응을 잘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요인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알 수 있는 공분산 구조분석에서는 내적통제신념이 강할수록 부모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문제성 지각을 하게 되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in (1999)의 연구에서 내적통제신념은 외적통제신념에 비해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건강한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내적통제신념은 연구대상이나 연구도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지적과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가정 아동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스트레스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전해한 후, 이혼가정 아동의 내적통제신념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Sandler, Kim과 Tein (1997)의 해석과 일치한다. 즉, 부모이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지각함에 따라 부모이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문제성 지각정도를 높여 적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구조모형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혼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동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일상생활에 충실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Stolberg과 Mahler (1994)의 지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아동의 내적통제신념은 가족회복력 요인 중 사회적지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총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는데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내적통제신념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어 단순히 결과만 해석할 때는 이러한 사회적지지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같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할 수 없으며 때로는 정적, 부정적 결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즉 사회적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내적통제신념을 강화하여 오히려 부모이혼에 대해 문제성 지각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또 다른 면으로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인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계획 시 이혼가정의 아동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과 친구, 교사 등의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강점 측면의 아동 개인의 회복력 요인과 가족회복력 요인을 강화시킴으로써 아동의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신념이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과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줘도 불구하고 표준오차가 커서 유의성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대상자의 심리적인 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외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측정자체에 변화가 많아 표준오차가 클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한다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신념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회복력 요인을 중심으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모형 개발을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회복력 요인은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회복력 요인은 아동의 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력요인 중심의 본 모형이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간명하고 적절한 모형임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변수들은 간호중재를 통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과 아동의 회복력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으므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가족전환이나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와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론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이혼관련 특성, 가족회복력 요인을 포함한 모형개발의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이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적응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가족 적응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각 내생변수에 미치는 문제해결대응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아동의 수준에서 이해되는 가족회복력을 보다 정확하고 폭넓게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회복력 요인을 기

초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0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mato, L.,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 Amato, P. R.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Feb), 23-38.
- Bae, B. R. (2005). *Lisrel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active Lisrel* (2nd ed.). Seoul: Chunglam Publishing.
- Bae, J. (2008).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 454-464.
- Baren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ho, S. A. (2004). *Differences in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according to the level of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f children of divor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Coopersmith, S. (1975).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Dubow, E. F., & U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 52-64.
- Emery, R. (1999). *Postdivorce family life for children: Postdivorce family*. Thousand Oaks, CA: Sage.
- Han, M. H. (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Han, S. S., & Kim, K. M. (2006). Influencing factors on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37-44.
- Hetherington, E. M. (1991).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family relationships in children's coping with divorce and remarriage.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 (Eds.), *Family transitions* (pp. 163-19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etherington, M., & Stanley-Hogan, M. (1999).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129-140.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 107-130.
- Joo, S. H. (2004). *Study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child's adaptation after divorce in child's point of view*.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Kelly, J. B. (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963-972.
- Kim, S. K., & Kang, M. H. (2005). The path-analysis among risk-protective factors on the resilience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 261-278.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A report of population and households*. Retrieved December 10, 2009, from http://kosis.kr/metadata/main.jsp?c_id=1962004
- Kurdek, L. A., & Berg, B. (1987). Children's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712-718.
- Lee, Y. A. (1995). *A study of perceived family adaptation in patient with chronic renal fail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ske, J. S., & Jiricka, M. K. (1998). Impact of family demands and family strengths and capabilities on family well-being and adaptation after critically injury. *American Journal of Critical Care*, 7, 383-392.
- Lin, S. I. (2000). Coping and adaptation in family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Exceptional Children*, 66, 201-217.
- McCubbin, M. A., & McCubbin, H. I. (1993). Families coping with illness: 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C. B. Danielson, B. H. Bisell, & P. W. Fry (Eds.), *Families, health, and illness: Perspectives on coping and intervention* (pp. 21-63). St. Louis, MO: Mosby.
- McCubbin, M. A., McCubbin, H. I., & Thompson, A. I. (1986). Family hardiness index (FHI). In H. I. McCubbin, A. I. Thompson, & M. A. MaCubbin (Eds.), *Family 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Inventory for research and practice* (pp. 239-305).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 McCubbin, H. I., Olson, D., & Larsen, A. (1981).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 (F-COPES). In H. I. McCubbin, A. I. Thompson, & M. A. MaCubbin (Eds.), *Family 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Inventory for research and practice* (pp. 455-507).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 Min, H. Y. (1990). *Circumplex model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Min, H. Y. (1999). *The Influence of the perceived controllability of stress situation and locus of control on children's coping behaviors with hass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Nam, Y. O., & Kim, J. H. (2003).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resilience of adolescents in the alcoholic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 199-221.
- Oh, K. J., Lee, H. L., Hong, K. Y., & Ha, E. H. (1997). *K-CBCL: Korean children behavior check list*. Seoul: Chungangjucksung Publication.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ndler, I., Kim, L., & Tein, J. (1997). Locus of Control as Stress moderator and mediator in child of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145-155.
- Sim, M. K. (2004). *Testing of resiliency model of families of children with canc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tolberg, A. L., & Mahler, J. (1994). Enhancing treating gains in a school-based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divorce through skill building, parental involvement and transfer proced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47-156.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NY: Guilford.